



【 지방직 9급 】

01 밑줄 친 문장 가운데 어법에 맞는 것은?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을 지어 왔다. 그래서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 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육질 섭취 수단으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가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농경 생활을 했음에 틀림없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정착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 수렵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의 소처럼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당연히 수렵한 결과인 소 등의 동물로 육질을 섭취했던 것이다.

㉡ 일반적으로 서유럽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다. 그들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 그러나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보면, ㉢ 힌두교도들 역시 쇠고기를 먹는 서유럽 사람들을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 이슬람, 유대교도들 또한 서유럽의 돼지고기를 먹는 식생활에 거부감이 느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01 비문

- ㉠ '農耕(농경)'의 '耕'과 '지어왔다'가 의미 중복 표현에 해당한다.
㉡ 목적격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었다. '서유럽 사람들에게'로 고친다.
㉢ 주격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었다. '거부감'으로 고쳐야 한다. ㉣ ㉡

02 다음 글이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린 때때로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깊은 속내를 읽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 자세, 제스처, 등을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① 글의 서론 부분 ② 글의 결론 부분
③ 글의 본론 부분 ④ 예를 드는 부분

02 글의 구성상 단계 파악

이 글에서 구성상 단계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보자.

- ㉠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 사람들은 어떻게 ~ 해석하고 반응하는가?
㉢ 이 글에서는 ~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글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다음 과제를 밝히고 있으므로 글 전체 중, 서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보통 글의 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리게 된다.
㉠ 논지 제시, ㉡ 서술 및 설명 방법, ㉢ 문제 제기(과제 제기), ㉣ 용어의 개념 정의, ㉤ 집필 동기 ㉣ ㉠

03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에게 진짜 불행(不幸)을 가져다 준 것은 어쩌면 8·15광복이라고나 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국의 광복은 우선 내조부를 몰락시켰다. 그의 위엄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현 갸신짜처럼 짓밟혔고, 근동 세 마을을 먹여 살리던 그 많은 가산들도 온통 거덜이 나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세상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에는 ()이기는 할지언정 그의 앞에선 감히 얼굴조차 바로 쳐들지 못하던 소작인이며 하인배들에게 급기야는 가혹한 조리돌림까지 당해야 했던 그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그날의 수모를 삭이지 못한 채 그들이 자신의 상여 메는 것조차 유언으로 거부했던 터였다.

— 이동하, '파편'

- ① 곡학아세 (曲學阿世) ② 면종복배 (面從腹背)
③ 부화뇌동 (附和雷同) ④ 허장성세 (虛張聲勢)

03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괄호 뒤의 '㉠지언정'은 '뒤 절을 강하게 시인하기 위하여 뒤 절의 일과는 대립적인 앞 절의 일을 시인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지언정'의 뒷부분 내용인 '얼굴조차 쳐들지 못하던'의 내용으로 볼 때, 괄호 안에는 ㉡가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의 면종복배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뜻하는 말이다. '얼굴조차 쳐들지 못하던'과 관련된 내용이 '면종복배'의 '복배'인 것이다. ㉣ ㉡

04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살립니다.
② 우리 부부는 둘 다 돈을 벌으므로 여유가 있습니다.→벌므로
③ 그는 맘에 진 작업복을 갈아 입었다.→절은
④ 모두 힘을 모아 차를 밀읍시다.→밟시다.



04 맞춤법

용언 어간이 ‘ㄹ’로 끝나고, 그 뒤에 ‘ㄴ, ㅂ, ㅅ, ㅇ’가 올 적에 앞의 ‘ㄹ’은 예외 없이 탈락한다.
따라서 ③은 ‘철(다)+ㄴ (관형사형어미)’의 형태이므로 ‘전’이 맞다. ㉠ ③

05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 분노 감정의 처리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적용된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공격 충동이 일어난다. 동물의 경우, 분노를 느끼면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발톱을 세우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도 분노를 느끼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눈매가 사나워지며 이를 꼭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공격 행위와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분노 감정이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수록 공격 충동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 ① 공격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
- ②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의 변화
- ③ 탈리오 법칙의 정의와 실제 사례
- ④ 동물과 인간의 분노 감정의 차이

05 중심 내용 파악

주어진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지] 분노→공격과 복수의 행동 유발
[상술] 분노→공격 충동→공격 행동
따라서 분노가 공격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 ②

06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써 그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
- ② 홍 교수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대칭구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 ③ 위에서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보면 김 교수의 몽고에 대한 연구가 원 세조 등장 이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위적이다.
- ④ 그는 바깥 풍경이 잘 보이게 열심히 창문을 닦았다.

06 비문

- ① ‘집’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집안’으로 고친다.
- ② 인용의 형식이 잘못되었다. 큰따옴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간접인용이므로, ‘안 된다고’로 고쳐야 한다.
- ③ 불필요한 피동표현을 사용하였다. ‘제시한’으로 고친다. ㉠ ④

07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토박이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쓰는 버릇이 생겼다. ‘가람’이 옛날부터 있는데도 중국에서 ‘강(江)’이 들어오더니 ‘가람’을 물리쳤고 ‘뫼’가 있는데도 굳이 ‘산(山)’이 그 자리에 올라앉고 말았다. (중략)

원래 ‘외래어’란, 우리말로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을 때에 마지못해 외국말에서 빌려다 쓰다가 보니 이제 완전히 우리말과 똑같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학교, 선생, 비행기, 가족계획’ 등등의 무수한 한자어가 그것이며, ‘버스, 빌딩, 커피, 뉴스’ 등등 서양에서 들여온 외국어가 그것이다.

-허용, ‘한글과 민족문화’

-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②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07 내용에 어울리는 속담

단락이 두 개이므로 둘째 단락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둘째 단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이는 ②와 잘 관련된다.

원관념	(지문)	외래어	우리말	자리 차지
보조관념	(②)	굴러온 돌	박힌 돌	뻘다

㉠ ②

08 밑줄 친 표현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 ① 민주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지양(止揚)한다.
- ②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도매급(都賣級)으로 욕을 먹었다.
- ③ 그 회사는 사건의 진상을 호도(糊塗)하려고 한다.
- ④ 우리 할아버지는 향년(享年) 80세이신데도 정정하시다.

08 어휘의 호응

- ③ ‘호도’는 ‘품을 칠함’을 뜻한다. 즉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문맥에 잘 어울린다.
- ① ‘지양’은 ‘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어떤 목표로 향한다는 뜻의 ‘지향(志向)’을 써야 한다.
- ② ‘도매’는 ‘묶어서 파는 것’을 뜻하므로, 그때의 가격을 나타내는 ‘금(金)’이 뒤에 와야 한다.
- ④ ‘향년’은 ‘죽을 때의 나이’를 뜻하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③



09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

- ① 목호 : Muko
- ② 극락전 : Geuknakjeon
- ③ 경포대 : Gyeongphodae
- ④ 평창 : Pyeongchang

09 로마자 표기법

- ① 체언은 축약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목호]를 Mukho로 적는다.
- ② 비음화를 적용하고 된소리되기는 적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극락전]을 Geungnakjeon으로 적는다.
- ③ [경포대]의 '포'는 po로 적어야 하므로, Gyeongpodae로 적는다.

④

10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학문은 나름대로 고유한 대상영역이 있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학문이 법학이며,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물론 그 영역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문이란 일정 대상에 관한 보편적인 기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기술(記述)을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조작,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실천성만이 학문의 동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학문은 사회로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낱말은 ()입니다. 결국 학문이 어떤 대상의 기술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술하는 사람의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원리적으로는 “누구에게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지(知)에 대한 설명도 같은 지(知)의 공동체에 속한 다른 연구자가 같은 절차를 밟아 그 기술과 주장을 재검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론하고 반박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 ① 전문성(專門性) ② 자의성(恣意性)
- ③ 정체성(正體性) ④ 보편성(普遍性)

10 문맥에 어울리는 한자어

괄호 뒤의 내용에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알 수 있다.
학문-주관(x),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 논증해야 함 ① ④

11 다음을 하나의 단락으로 올바르게 완성하기 위해 나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남저수지의 백조들은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고 있다. ㉠ 겨울 주남저수지에는 약 1만여 마리의 백조가 유유히 헤엄치며 무리를 이루고 있다. ㉡ 보통 때엔 목을 S자로 굽히지만, 경계할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목을 곧게 세우고 한 곳으로 모여든다. ㉢ 주남저수지에는 왜가리와 큰 기러기가 상당히 있으며, 희귀종으로 알려진 재두루미도 12마리나 날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 백조가 한 쪽 다리로 서서 머리를 등과 깃털 사이에 넣고 잠을 자기도 하고, 긴 목을 물 속 깊숙이 넣고 수초의 뿌리를 먹는 모습이 재미있다. ㉤ 날개를 무겁게 퍼덕거리며 발로 차듯 뛰어가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 ① ㉡에는 ‘경계할 만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줘야겠어.
- ② ㉢은 단락 전체의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해야 되겠어.
- ③ ㉣은 ㉠과 의미가 중복되니까 빼는 게 좋겠어.
- ④ 백조가 저수지를 떠난 뒤의 풍경을 묘사한 문장을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어.

11 글의 퇴고

- ② 화제는 ‘백조’인데, 이와 관련이 없는 ‘왜가리, 큰 기러기’ 등이 나오는 것은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
- ① 중심 내용이 ‘우아한 기품’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경계할 만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 ③ ㉠은 주지, ㉠~㉣은 상술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주지를 구체화하는 데에 필요한 문장이다.
- ④ 중심내용이 ‘우아한 기품’이므로, ‘저수지를 떠난 뒤의 풍경’은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다.

12 외래어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이팅 ② 슈퍼마켓
- ③ 꼬냑 ④ 팸플릿

12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③은 ‘코냑’으로 적어야 한다. ③



13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더라.”라는 말이 있다. 인간을 경제적 요소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이에 따른 인권문제, 복지문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갈등 등이 수반된다는 말이다. 프랑스처럼 우선 급하다고 이민자를 선별하지 않고 받으면 인종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 등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 이제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만 다문화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까지 큰 틀에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다.

㉢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언어 배우기, 일자리, 문화 이해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좋은 인력을 선별해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인구 유입 초기부터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 환경이 모두 낯선 이민자에게는 이민 초기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이 아닌 주류층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내국인에게 증오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 ① ㉠-㉡-㉢-㉣ ② ㉡-㉠-㉢-㉣
③ ㉠-㉢-㉡-㉣ ④ ㉡-㉢-㉠-㉣

13 순서 바로잡기

우선 ㉠~㉣의 내용을 간추려 보자.

㉠ 인간을 경제적 요소로만 단순하게 생각→인권문제, 복지문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갈등 등이 수반됨
프랑스-이민자를 선별하지 않고 받음→인종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

등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

㉡ (이제)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전환해야 함

다문화가족-적극적 지원+상생 도모+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도 포함

㉢ 다문화 정책의 핵심-두 가지

첫째-좋은 인력→선별 입국

둘째-사회통합에 주력

해외 인구 유입 초기부터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

㉣ 이미 들어온 이민자-적극적 지원

다문화 가족-주류층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

이민자-차별과 편견→내국인에게 증오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됨

일단 ㉡와 ㉢는 대책에 해당하므로 뒤에 봐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답은 ④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논리적이다.

㉠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는 사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라는 것

㉡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대책

㉣ 앞으로 다문화 정책의 변화 필요성

④

14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秦) 나라 재상인 상양(商鞅)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진나라 재상으로 부임한 상양은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았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대궐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방문(榜文)을 붙였지요.

“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서는 백금(百金)을 하사한다.”

그러나 옮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금을 만금(萬金)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상금을 기대하지도 않고 밀질 것도 없으니까 장난삼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에 적힌 대로 만금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잘 따르게 되고 진나라가 부국강병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① 신뢰의 중요성
② 부국강병의 가치
③ 우민화 정책의 폐해
④ 명분을 내세운 정치의 효과

14 내용의 이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양	만금	만금지급	부국강병 성공
정치가	약속	이행	민심 획득

즉 정치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자신이 국민과 한 정치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①

**1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는 조지 윌리엄스와 윌리엄 해밀턴이 주도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그 개체 자신의 이익도 아니고,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도구이자 일회용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따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타성과 협력이 유전자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 ② 인간은 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 ③ ‘이기적인 유전자’ 혁명은 인간이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 ④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15 내용 확인하기

- ① ~④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자.
- ① 인간-유전자 이익→행동
- ② 인간-이타적 행동+협력
- ③ 이기적 유전자 혁명-유전자→이기적 행동
- ④ 유전자 이익→이타적 행동 설명 가능
- ③ 끝에서 넷째 문장, “‘이기적 유전자’ 혁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철저하게 냉혹한 이기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에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둘째 문장,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 오로지 유전자의 이익이라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 ② 끝에서 둘째 문장,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왜 따로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마지막 두 문장에서 알 수 있다.

④ ③

16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체로 술을 받친다.
- ② 요즘 영수는 수영에 흥미를 붙이고 있다.
- ③ 이것으로 축사를 같음합니다.
- ④ 고무줄을 더 늘이면 끊어질 것이다.

16 맞춤법

- ① ‘액체만 받아낸다’의 뜻을 가진 말은 ‘받치다’이다.

④ ①

17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 시대는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문학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무릇 四千年이 넘는 생활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발전 시기마다 각각 특색을 가진 문학이 없을 수 없고, 문학이 있었다면 그 중 추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가문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대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성립하는 동시에 벌써 각자의 감정과 의사를 표시하려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며, 삼라만상의 대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울동적이고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시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사람의 지혜가 트이고 비교적 언어의 사용이 능란해짐에 따라 종합 예술체의 한 부분으로 있었던 서정문학적 요소가 분화·독립되어 제요나 노동요 따위의 시가의 원형을 이루고 다시 이 집단적 가요는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하여 갔으리라 추측된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문학사상 시가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한 몫을 지니고 있다.

- ① 왜냐하면-그리고-그러므로
- ② 그리고-왜냐하면-그러므로
- ③ 그러므로-그리고-왜냐하면
- ④ 왜냐하면-그러나-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접속부사 넣기

- ㉠에는 뒤의 문장 끝부분에 있는 ‘때문이다’로 인해 선택이 제한적이다. 즉 ‘왜냐하면’이 와야 한다.
- 그렇다면 ㉡ 앞뒤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 ㉡ 앞 : 시가-발생
- ㉡ 뒤 : 시가-발생→발전
- 따라서 ㉡ 앞뒤의 관계는 ‘주지-부연’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또한, 여기에도’ 등이 들어가야 한다.
- 결국 답은 ①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①



18 밑줄 친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거법 저촉(抵觸)(→해당) 여부를 검토하다.
- ② 국력 배양에 가일층(加一層)(→한층 더) 매진하다.
- ③ 그들은 대절(貸切)(→전세) 버스 편으로 상경했다.
- ④ 검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買占)을(→사재기) 단속하기로 했다.

18 한자어의 순화

①의 '저촉(抵觸)'은 '위반(違反)'의 뜻이다. 따라서 '해당'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19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사용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추위를 무릎쓰고 밖에 나가셨다.
- ②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르셨다.
- ③ 그가 미소를 띤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 ④ 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사업을 벌렸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19 맞춤법과 표준어

① ③ ④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① 무릅쓰고, ③ 띤, ④ 벌였다가 ②

20 밑줄 친 표현 중 잘못 사용된 것은?

- ① 고향 젓갈로 담가서 그런지, 이번 김치 맛은 그야말로 고향의 맛이야!
- ② 한참 동안 감기를 앓았다더니, 네 눈이 정말 상큼 해졌구나.
- ③ 이사를 하게 되자, 매일 만나지 않고는 못 배기던 우리 사이가 조금씩 상기게 되었다.
- ④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꼭지를 잠궜 두었다.

20 맞춤법

④는 어간 '잠그(다)'에 어미 '아'가 결합하자, 'ㄱ'이 탈락하여 '잠가'로 활용하는 단어이다. ④